

## 부산 영도(絶影島), 신라왕실목장

서영교\*

### | 목 차 |

- I. 머리말
- II. 聖德王의 絶影山 牧場
- III. 西域馬의 생산지 絶影島
- IV. 신라의 다도해 섬 목장
- V. 맺음말

### | 국문 |

710년 경 김유신의 손자 允中은 聖德王에게 絶影山馬 1필을 하사받았다. 그 말의 생산지 絶影島였고, 그곳에 신라 왕실목장이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절영도 목장은 신라사신이 왜국으로 향하는 항구에 위치했다. 통일 후 신라가 일본에 증여한 품목 가운데 말과 노새 등이 간간히 보이고 있어, 일본으로 향하던 신라 사절들이 절영도 목장에 들렀던 것을 알 수 있다.

절영도 목장은 지리상 신라왕경과 가장 가까운 섬 목장이었고, 가장 먼저 조성된 섬 목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운영 경험은 신라의 섬 목장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신당서』 신라전에는 宰相家들이 일반적으로 섬에 목장을 두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 문무왕은 669년에 174개 목장을 왕

\* 중원대학교 한국학과 / syk367@naver.com

실·관청·진골귀족들에게 재분배했다. 846년 9월 중국에서 신라를 거쳐 일본으로 귀국하던 승려 圓仁의 일기에 신라 왕실·宰相의 섬 목장이 보인다.

후삼국시대에도 절영도는 명마 산지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926년 甄萱이 王建에게 절영도의 驄馬 1필을 선물했다. 총마의 이미지는 8세기 당나라 詩人 杜甫의 驄馬行에 나온다. 총마는 중앙아시아 大宛의 품종 汗血馬라고 한다.

신라에 키가 큰 말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속일본기』 716년 6월 조를 보면 일본의 관리 馬史伊麻呂 등이 新羅國紫驃馬 2마리를 천황에게 헌상했는데 어깨 높이가 5척 5촌(165cm)에 이른다고 한다. 중앙아시아산 종이면 그 정도의 크기가 되기 어렵다.

『史記』 大宛列傳에 大宛의 馬는 苜蓿을 좋아하여 그 말을 들여온 漢武帝는 그것을 중국에 심었다고 한다. 『삼국사기』 직관지 內省 조를 보면 신라왕실의 苜蓿 목초지 4곳이 보인다. 신라왕들은 진골귀족들의 말보다 키 크고 다리가 긴 絶影島의 驄馬를 탔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聖德王, 允中, 絶影馬, 新羅國紫驃馬, 大宛馬, 苜蓿, 甄萱, 王建

## I. 머리말

영도는 예로부터 말 사육장으로 유명하여 일본인들이 牧島라 부르기도 하였다. 영도에서 사육된 명마가 빨리 달려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 하여 絶影島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그 이름은 신라 성덕왕대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김유신전을 보면 성덕왕이 김유신의 손자 允中에게 絶影山馬를 하사했고, 이를 왕의 近親들이 질투했다고 한다.

이 기록은 단순히 볼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실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여러 기록들과 비교검토하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 여겨진다.

『고려사』에甄萱이王建에게 선물한絶影名馬에 대한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그 말에 얽힌 이야기가 조선시대 詩文에 적지 않게 언급되고 있다. 무엇보다 『續日本記』와 『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등 일본기록에서 신라와 조선시대의 말과 목장관련 기록이 보인다.

성덕왕대 절영산마가 언제 윤중에서 사여되었는지 시기를 좁혀 보고, 통일 이후 일본과의 빈번한 공적 교류 가운데 말과 노새 등이 新羅物로 종종 등장하는 것이 절영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다음으로 진골귀족들의 목장소유에 대해 살펴본 후 성덕왕의 절영산마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의 말인지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다도해 섬 목장들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고 절영도에 목장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추론해 보았다.

## Ⅱ. 聖德王의 絶影山 牧場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영도에서 생산된 말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특별히 김유신전에 실려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 집안의 자랑거리였고, 누가 보아도 관심을 끌 사건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신의 적손 允中(忠)은 성덕대왕 때 벼슬이 대아찬에 이르고, 여러 차레 왕의 은총을 입게 되자 왕의 친족들이 그를 몹시 시기하였다. 때는 8월 보름날이었는데 왕이 월성 꼭대기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며 시종관들과 함께 주연을 베풀고 즐기면서 윤중을 불러오라 하니 어떤 자가 간언하였다. “지금 종실척리(宗室戚里)들 중에 좋은 사람이 없지 않는데 어찌하여 유독 먼 신하를 부르십니까. 이것이 어찌 소위 가까운 사람을 친하게 여겨야 한다는 도리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왕

이 말했다. “지금 과인이 경들과 함께 평안무사하게 지내는 것은 윤중의 조부의 덕이다. 만일 공의 말대로 그를 잊어버린다면 선한 이를 선하게 대우하여 그의 자손에게도 덕이 미쳐야 한다는 도리에 어긋난다.” 왕은 마침내 윤중에게 가까운 자리를 주어 앉게 하고 그 조부의 평생에 대하여 담론하였다. 날이 저물어 윤중이 물러가기를 고하니 절영산말 한 필(賜絕影山馬一匹)을 하사하였다. 이 때 여러 신하들은 서운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sup>1)</sup>

8월 보름날 성덕왕은 김유신의嫡孫子 允中을 왕궁으로 불렀다. 그리고 삼국통일의 元勳 김유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덕왕이 물어보고 윤중이 대답을 하는 형식이었으리라. 저녁이 되어 윤중이 귀가할 때 성덕왕은 그에게 絕影山馬 1匹을 하사했다. 이를 본 왕실의 친척들은 서운하게 바라보았다.

“지금 宗室戚里들 중에 좋은 사람이 없지 않는데 어찌하여 유독 먼 신하를 부르십니까.”라고 언급한 사람들은 누구들일까. 宗室戚里는 김유신의 손자 윤중보다 혈연적으로 성덕왕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위의 사료 첫 머리에 윤중이 여러 차례 왕의 은총을 입게 되자 王의 親屬들이 그를 몹시 시기하였다고 한다. 聖德王之親屬은 金春秋의 직계 자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춘추와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 사이에 法敏(문무왕) 仁文, 文王, 老且, 仁泰, 智鏡, 愷元 등 7명의 아들과 古陀炤娘(대야성주 품석의 처)과 智照(김유신 처) 등 2명의 딸이 태어났다.<sup>2)</sup> 9남매와 그 후손들이 통일기

1) 『三國史記』 권43, 김유신전 “嫡孫允 仕聖德大王 爲大阿浪 屢承恩顧 王之親屬 頗嫉妬之時 屬仲秋之望 王登月城岑頭眺望 乃與侍從官 置酒以娛 命喚允中 有諫者曰 今宗室戚里 豈無好人 而獨召疎遠之臣 豈所謂親親者乎 王曰 今寡人與卿等 安平無事者 允中祖之德也 若如公言 忘棄之 則非善善及子孫之義也 遂賜允中密坐 言及其祖平生 日晚告退 賜絕影山馬一匹 群臣缺望而已”

중대의 최상층 지배세력이 되었고, 그들이 일반 진골귀족인 2骨보다 높은 1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sup>3)</sup> 윤중은 지조의 피를 받았으나 어디까지나 외손에 불과했다.

윤중이 말을 하사받은 시기는 성덕왕대 언제일까. 윤중은 여러 차례 성덕왕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5위 大阿湊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기백의 지적대로 ‘允中’은 ‘允忠’과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sup>4)</sup>

성덕왕 24년 여름 4월 … 中侍 宣宗이 退하고, 伊湊 允忠이 中侍가 되었다.<sup>5)</sup>

31년 겨울 12월, 角干 사공과 伊湊 正忠 · 允忠 · 사인을 각각 장군으로 삼았다.<sup>6)</sup>

윤중은 732년 12월에 장군 임명되었다. 각간 思恭과 이찬 貞宗 · 思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宰相급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중은 725년 성덕왕을 직속에서 보필하는 執事部의 수장인 中侍가 되

- 2) 『三國遺事』 권1, 태종춘추공 조 “太子인 法敏, 角干 仁文, 角干 王文, 角干 老且, 角干 智鏡, 角干 愷元 등 (김유신의 동생) 文姬가 낳은 아들들이다.” 『삼국유사』에는 김춘추의 정실 아들이 6명만 보인다. 仁泰가 빠져있다. 『삼국사기』 권5, 태종무열왕 2년 조 (655년)를 보자. “만아들 法敏을 太子로 삼고, 나머지 여러 아들 중에 王文을 伊湊으로, 老且를 海湊으로, 仁泰를 角湊으로 智鏡과 愷元을 각각 伊湊으로 삼았다.” 여기서 차남 仁文은 당에 숙위하고 있는 관계로 보이지 않고 角湊 仁泰가 보인다. 태종무열왕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다. 『三國史記』 권5, 진덕여왕 2년(648) 조를 보면 당에 들어간 김춘추가 당태종에게 “신은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당나라 황제에게 밝힌 7명은 정실 문희 소생의 아들이다. 문희가 낳은 딸은 2명은 대야성주 품석에게 시집간 古陀炤娘과 김유신에게 시집간(655) 智照이다.
- 3) 朱甫暉, 『新羅骨品社會とその變化』 『朝鮮學報』 198, 千里大學校 朝鮮學會, 2005(平成 17年) 참조.
- 4)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163~164쪽.
- 5) 『三國史記』 권8, 성덕왕 24년 夏 4월조, “靄 中侍宣宗退 伊湊允忠爲中侍”
- 6) 『三國史記』 권8, 성덕왕 31년 冬 12월조, “以角干思恭伊湊貞宗 允忠思仁 各爲將軍”

었다. 당시 관등은 2위 이찬이었다. 윤중이 절영산의 말을 하사받을 당시 5위 大阿湊이었다. 3단계나 진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중이 성덕왕을 월성 궁궐에서 만난 그 시기는 성덕왕대 초반인 710년 전후일 공산이 크다.

성덕왕이 하사한 말은 절영도에서 생산되었다. 왕은 왕실의 목장에 서 사육된 말을 하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절영도가 왕실 목장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sup>7)</sup> 통일 이후 일본과의 교류에 말과 노새 등이 新羅物로 종종 등장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부산은 신라사신이 일본으로 향하는 창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대마도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 안전한 항구이다. 절영도가 일본의 對馬島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48km)에 있었는지는 다음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承和 10年(843) 8月 戊寅일에 大宰府 아뢰었다. 對馬鳴의 上縣郡에 竹敷埜의 防人 등이 상신하기를 지난 正月 中旬에 이번 달 6일에 이르기 까지 新羅國에서 鼓聲 소리가 있어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들렸는데 매일 3번씩 울렸습니다. 항상 巳時에 그 소리가 發動였고 더하여 黃昏에 으르면 불빛이 보였습니다.”<sup>8)</sup>

843년 대마도 부산 쪽 해안을 지키는 防人 등이 大宰府에 보고하기를 정월 중순부터 8월까지 신라 쪽에서 북소리가 들리는데 매일 3번 울리고, 항상 오전 10시경을 기다렸다가 그 소리가 울린다고 한다. 더욱이

7) 서영교, 『신라 통일기 기병증설의 기반』 『역사와 현실』 45, 한국역사연구회, 2002, 149쪽. 고경석, 『장보고 세력의 경제적 기반과 신라 서남해 지역』 『韓國古代史研究』 39, 한국고대사학회, 2005, 215쪽.

8) 『續日本後紀』 卷13, 承和 10年(843) 8月 戊寅, “大宰府言 對馬鳴上縣郡竹敷埜防人等申云 從去正月月中旬 迄于今月六日 當新羅國 遙有鼓聲 傾耳聽之 每日三響 常俟巳時 其聲發動 加以至于黃昏 火更見矣 (후략)”

해질 무렵이면 불빛이 또한 보인다고 했다. 신라에서 북을 치면 대마도에서 정확히 들리고, 불을 집혀도 보일 정도였다.

성덕왕 당시 신라와 일본의 교류는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719년 7월 金長言을 단장으로 하는 신라 사절 40인이 일본의 왕경에 도착했다. 그들은 일본천황에게 신라 성덕왕이 보내는 희귀동물을 데리고 왔다.<sup>9)</sup> 관련 기록을 보자.

新羅使人 등 調物과 騾馬 牡牝 各 1疋을 바쳤다.

金長言等에게 饗응을 베풀었다. (신라)國王과 長言 等에게 祿을 하사했으나 차이가 있었다.

그날 大外記 從位下 白猪史廣成을 遣新羅使로 삼았다

金長言 등이 (신라로) 돌아갔다. <sup>10)</sup>

719년 閏7월 癸亥에 신라 성덕왕의 이름으로 調物과 함께 노새 암수 가 천황에게 증여되었다. 노새는 수나귀와 암말 사이에 난 잡종으로 말보다 작고 나귀에 가까우며, 거친 음식을 먹고 강인하여 힘든 일에 잘 견딘다. 암수 한 쌍을 보냈다고 하지만 노새 그 자체는 번식력이 없다. 노새의 생산은 일본에 대한 신라 수의학 기술의 과시일 수도 있다.

일본천황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성덕왕과 김장언 등에게 선물을 했다. 日本 大藏省式에 의하면, 新羅王에게는 施 25疋, 絲 100絢 綿 150 疋, 大使에게는 施 8疋, 綿 90疋, 副使에게는 施 8疋, 綿 80疋, 大通事와 錄事 施 5疋 綿 30疋, 醫師, 船頭, 通事, 小通事, 大海師, 學語生에게 施 2疋 綿 6疋, 僊人海師에게 施 1疋 綿 5疋, 水手에게는 綿 1疋 포 1단을 준

9) 『續日本紀』 권8, 養老3년(719) 5월 乙未, “新羅貢調使級浪金長言等四十人來朝”

10) 『續日本紀』 권8, 養老3년(719) 閏7월 癸亥, “新羅使人等獻調物并騾馬牡牝各一疋”

『續日本紀』 권8, 養老3년(719) 閏7월 丁卯, “賜宴於金長言等 賜國王及長言等祿有差 是日 以大外記從位下白猪史廣成爲遣新羅使”

『續日本紀』 권8, 養老3년(719) 閏7월 癸酉, “金長言等還蕃”

다고 규정되어있다.<sup>11)</sup>

당시 일본의 대장성식에 최상위 신라왕은 물론이고 사절단의 대사에서 부사, 대통사(통역관 수장)와 녹사(기록관), 의사, 선두(선장), 통사(통역관), 소통사, 대해사(항해사), 학어생(언어연수생), 겸인해사(항해사의 조수), 水手(선원)에 이르기 까지 천황이 주는 선물의 양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 존재는 당시 신라와 일본사이의 교류가 얼마나 많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말 또한 신라왕이 일본왕에게 증여한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하나였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14年(685) 5月 辛未 조 기록을 보자.

辛未에 高向朝臣麻呂와 都努朝臣牛飼 등이 新羅에서 돌아왔다. 學問僧 觀常과 雲觀이 그들을 따라왔다. 新羅王(신문왕)이 선물을 보내 왔는데 馬 2필 개(犬) 3마리 양무鸚鵡 2마리, 까치 2마리 와 여러 종류의 寶物 등이 그것이다.<sup>12)</sup>

685년 高向朝臣麻呂가 이끄는 일본의 사절단이 신라를 방문했고, 신라에서 불교를 공부하던 일본의 학문승 觀常과 雲觀이 사절단이 귀국할 때 동행했다. 그들은 神文王이 일본의 천무천황에게 보내는 선물과 함께 귀국했다. 그 가운데 동물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말 2필 개 3마리 양무와 까치가 각각 2마리였다. 일본왕에게 보내는 말과 개는 상당한 名馬와 名犬였다고 보아야 한다.

11) 스가노노 마미치外著, 이근우 譯註, 『속일본기』 1, 지식음만드느지식, 2012, 253쪽 주) 130·131.

12) 『日本書紀』 권29, 天武天皇 14년(685) 5월 辛未, “高向朝臣麻呂 都努朝臣牛飼等 至自新羅 乃學問僧觀常 雲觀 從至之 新羅王獻物 馬二疋 犬三頭 鸚鵡二隻 鶻二隻 及種々寶物”



天智天皇 10年(671) 6月 是月 조 “新羅가 사신을 파견하여 進調하고 별도로 水牛 1頭와 山鷄一隻을 헌상했다.

天武天皇 8年(679) 10月 甲子 조 新羅가 阿滄 金項那과 沙滄 薩累生을 파견하여 朝貢하였다. 調物로 金·銀·鐵鼎·錦絹布와 가죽, 馬·狗·騾(노새)·駱駝 등 十餘種과 또한 별도로 天皇·皇后·太子에게 金銀刀와 깃발 류 등 각기 수개를 바쳤다.”

朱鳥元年(686) 4月 戊子 조 “新羅가 進調를 筑柴에 바치고, 細馬 1疋과 騾(노새) 1頭·개(犬) 2狗·鏤金器·金銀·霞錦·綾羅·虎豹皮 그리고 藥物類 100餘種을 바쳤다. 또한 (신라사신) 智祥和 健勳 등이 별도로 金銀·霞錦·綾羅·金器·屏風·鞍皮·絹布와 藥物類 각 60餘種을 바쳤다. 다시 또한 皇后와 皇太子 그리고 여러親王 등에게 物을 바쳤는데 각기 여러 개를 주었

持統 2年(688) 2月 辛卯 조 “大宰부가 新羅調賦를 바쳤다. 金銀·絹布·皮·銅鐵類 10餘物과 아울러 별도로 佛像·種種彩絹·鳥馬類 10餘種을 바치고 (신라사신) 霜林이 金銀·彩色·種々珍異物과 아울러 80餘物을 바쳤다.”<sup>13)</sup>

671년 문무왕은 일본에 물소 1두를 보냈고, 679년에는 말, 개, 노새, 낙타를 보냈다. 686년 신문왕이 세마 1필, 노새 1두, 개 2구를 보냈으며,

13) 『日本書紀』卷27, 天智天皇 10年(671) 6月 是月, “新羅遣使進調 別獻水牛一頭 山鷄一隻”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8年(679)10月 甲子, “新羅遣阿滄金項那 沙滄薩累生朝貢也 調物 金銀鐵鼎 錦絹布 皮 馬 狗 騾 駱駝之類十餘種 亦別獻物天皇 々后 太子 貢金銀刀旗之類各有數”

『日本書紀』卷29, 朱鳥元年(686) 4月 戊子, “新羅進調從筑柴貢上 細馬一疋 騾一頭 犬二狗 鏤金器 及金銀 霞錦 綾羅 虎豹皮 及藥物之類 并百餘種 亦智祥 健勳等別獻物 金銀 霞錦 綾羅 金器 屏風 鞍皮 絹布 藥物之類 各六十餘種 別獻皇后 皇太子 及諸親王等 之物各有數”

『日本書紀』卷30, 持統 2年(688) 2月 辛卯, “大宰獻新羅調賦 金銀 絹布 皮銅鐵之類 十餘物 并別所獻佛像 種々彩絹 鳥馬之類十餘種 及霜林所獻金銀 彩色 種々珍異之物 并八十餘物”

688년에는 鳥馬之類 10여종을 보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라의 遣倭使들이 출국 전 왜국으로 가는 항구인 부산에 들렀고, 그곳에 위치한 절영도 왕실 목장에서 말 등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 왕경에서부터 동물들을 끌고 오는 것보다 출국항구인 부산에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편리하다.

『東萊府誌』 古蹟 조를 보면 신라의 태종무열왕 金春秋가 이곳을 다녀가 태종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 있다.

“太宗臺는 동래부(府) 남쪽 30리에 위치해 있다. 絶影島의 東쪽에 新羅太宗이 와서 유람하며, 활을 쏘면서 머문 장소가 있다(太宗臺在 府南三十里 絶影島東 新羅太宗來遊射候之處.)”<sup>14)</sup>

『東萊府誌』는 1740년 동래부사 朴師昌이 편찬한 후대의 기록이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647년 김춘추가 왜국을 방문한 기록이 『일본서기』에 남아있다.<sup>15)</sup> 김춘추가 왜국으로 가기 위해 부산을 들렀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왕족인 그가 절영도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노복일수도 있는 왕실 목장 관리인들이 그곳에 상주했고, 그가 머물 수 있는 廳舍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왜국으로 가기 위해 순풍을 기다리고 있었고, 태종대를 유람하며 그곳에서 활을 쏘았던 것일 수도 있다.<sup>16)</sup>

14) 『東萊府誌』 古蹟, 43쪽.

15) 『日本書紀』 卷25, 大化 3年(647) 是歲條, “(생략) 新羅遣上臣大阿浪金春秋等 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 小山中中臣連押熊 來獻孔雀一隻 鸚鵡一隻 仍以春秋爲質 春秋美姿顏善談矣”

16) 여기에 대해서 「김춘추와 태종대」라는 제목으로 논고를 준비 중이다.

### Ⅲ. 西域馬의 생산지 絶影島

언급한 『三國史記』 김유신전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근친왕족들의 서운함은 성덕왕의 절영산마 하사에서 절정을 찍는다. 그 말은 어떠한 존재인가. 669년 문무왕이 목장을 재분배 했다. 그 기준은 관등이었다. 『三國史記』 권6, 文武王 9년(669) 조를 보자.

領馬陸九(凡)一白七十四所, 屬所內二十二, 官十, 賜庾信太大角干六, 仁間太角干五, 伊滄五人各二, 蘇判四人各二, 波珍滄六人 大阿滄十二人各一 以下七十四所 隨宜賜之

174개의 목장 가운데 문무왕의 왕실이 22개, 太角干 김유신이 6개, 太角干 金仁間(왕의 동생)이 5개, 伊滄 5명과 蘇判(逆滄) 4인이 각각 2개, 波珍滄 6인과 大阿滄 12인에게 각각 1개의 목장이 재분배되었다. 이하 74개소는 적당히 분배되었다.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2년(655년) 조를 보면 “만아들 法敏(문무왕)을 太子로 삼고, 나머지 여러 아들 중에 文王을 伊滄으로, 老且를 海滄(과진찬)으로, 仁泰를 角滄으로, 智鏡과 愷元을 각각 伊滄으로 삼았다.”라고 한다.<sup>17)</sup> 이로부터 14년 후인 669년 그들은 대부분 伊滄과 逆滄의 관등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언급한 바와 같이 태종무열왕의 장남인 문무왕이 22개소의 목장을 자신의 내성에 소속시켰고, 차남인 太角干 김인문은 5개소의 목장을 수여 받았다. 김인문의 동생들 文王, 老且, 仁泰, 智鏡, 愷元 등은 각각 2개

17)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2년(655년)조, “二年 春正月 拜伊滄金剛爲上大等 波珍滄文忠爲中侍 高句麗與百濟 靺鞨連兵 侵軼我北境 取三十三城 王遣使入唐求援 三月 唐遣營州都督程名振 左右衛中郎將蘇定方 發兵擊高句麗 立元子法敏爲太子 庶子文王爲伊滄 老且爲海滄 仁泰爲角滄 智鏡愷元各爲伊滄”

의 목장을 하사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문무왕과 그 형제들의 지손인 聖德王之親屬들도 목장과 말을 상속받았을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太角干 김유신도 6개의 목장을 받았다. 조부 김유신에게 가문을 물려받은 종손 윤중도 자기 소유의 목장이 존재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도 적지 않은 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성덕왕이 하사한 절영산 말은 최고위 귀족들이 소유한 말과 뭔가 다른 특별한 것으로 여겨진다.

절영도는 누대로 명마 생산지였다. 926년 8월 甄萱이 고려 태조 王建에게 절영도의 驄馬 1필을 선물했다고 한다.

“(926년)八月甄萱遣使來獻絕影島驄馬一匹。”(『高麗史』卷1-世家1-太祖1)

甄萱이 외교상 왕건에게 증여한 선물이라 평범한 것은 아닌 듯하다. 『삼국사기』는 위의 기록은 924년의 사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을 연대별로 끊어 살펴보자.

(고려 태조)6년(920)에 견훤이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다음 군사를 진례성으로 옮겼다. 신라왕이 아찬 김를을 보내 태조에게 원조를 청하였으므로 태조가 군사를 출동시켰다. 견훤은 이 소식을 듣고 물러갔다. 견훤은 우리 태조와 겉으로는 화친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상극이었다.

동광 2년(924) 가을 7월에 견훤이 아들 수미강을 보내 대야, 문소 두 성의 군사를 동원하여 조물성을 공격하였으나, 성안 사람들이 태조를 위하여 굳게 수비하면서 싸웠으므로 수미강이 실패하고 돌아갔다. 8월에 견훤이 사신을 보내 태조에게 驄馬를 바쳤다.

3년(925) 겨울 10월에 견훤이 기병 3천을 거느리고 조물성에 이르

렀으므로 태조도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서로 겨루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견훤의 군사가 매우 강성하여 승부를 내지 못하였다. 태조가 임시로 평화를 유지하는 술책으로써 견훤의 군사를 피곤케 하고 자글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당계 왕신을 인질로 보냈다. 견훤도 그의 사위 진호를 보내 인질을 교환하였다. 12월에 견훤이 거창 등 20여 성을 쳐서 빼앗고 후당에 사신을 보내 속국이라 일컬으니, 당나라에서 그를 검교대위검시중판백제군사로 책봉하고, 종전의 지절도독전무공동주군사행전주사사해동서면도통지휘병마제치동사백제왕과 식읍 2천5백 호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다.

4년(926)에 진호가 갑자기 죽었다. 견훤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일부러 죽인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는 곧 왕신을 옥에 가두고 사람을 태조에게 보내 전년에 주었던 驄馬를 돌려보내기를 요청하였다. 태조가 웃으면서 그 말을 돌려주었다.<sup>18)</sup>

920년에 甄萱이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느리고 함천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다음 군사를 김해 진례성으로 진격했다. 신라왕이 원조를 청하자 高麗 王建이 군사를 출동시켰다. 신라 영토에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견훤은 군대를 물렸다.

924년 가을 7월에 견훤이 아들 수미강을 보내 함천의 대야, 문소 2성의 군사를 동원하여 조물성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성안 사람들 항전이 만만치 않아 수미강이 군대를 돌렸다. 다음 달인 8월에 견훤이 왕건에

18) 『三國史記』 권50, 견훤전, “(고려 태조)六年 萱率步騎一萬 攻陷大耶城 移軍於進禮城 新羅王遣阿漉金律 求援於太祖 太祖出師 萱聞之 引退 萱與我太祖陽和而陰剋 同光二年(924)秋七月 遣子須彌強 發大耶開韶二城卒 攻曹物城 城人爲太祖固守且戰 須彌強失利而歸 八月 遣使獻驄馬於太祖 三年(925)冬十月 萱率三千騎 至曹物城 太祖亦以精兵來 與之戰 時萱兵銳甚 未決勝負 太祖欲權和以勞其師 移書乞和 以堂弟王信爲質 萱亦以外甥眞虎交質 十二月 攻取居昌等二十餘城 遣使入後唐稱藩 唐策授檢校大尉兼侍中判百濟軍事 依前持節都督全武公等州軍事行全州刺史海東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等事百濟王 食邑二千五百戶 四年(926)眞虎暴卒 萱聞之 疑故殺 卽囚王信獄中 又使人請還前年所送驄馬 太祖笑還之”

게 사신을 보내 驄馬를 선물했다.

925년 겨울 10월에 견훤이 기병 3천을 동원하여 조물성으로 쳐들어왔다. 왕건도 정예 군사를 동원하여 싸움이 벌어졌다. 전투는 백중세였다. 왕건이 먼저 화친을 청하고 그 징표로 인질 교환을 제안했다. 왕건이 6촌 동생 王信을 보내고, 견훤이 그의 사위 眞虎를 보내 화의가 성립되었다.

926년 왕건에게 인질로 왔던 견훤의 사위 진호가 急死하여 문제가 생겼다. 견훤은 피살을 의심하여 왕건의 친척 왕신을 옥에 가두고 사람을 태조에게 보내 전년에 주었던 驄馬를 돌려 보내기를 요청하니 태조가 웃으면서 그 말을 돌려주었다. 왕신과 驄馬의 교환에는 견훤의 도참이 일정 역할을 했다.

甄萱이 도참(圖讖)에게, ‘절영도의 명마(名馬)가 (왕건에게: 필자) 이르면 백제가 망한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곧 후회하여 사람을 시켜 그 말을 돌려주기를 청하니, 고려왕이 웃으면서 이를 허락하였다 (『高麗史』 卷1, -世家1-太祖1).<sup>19)</sup>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絶影島驄馬를 ‘絶影名馬’라고 부르기도 했다. 절영도 목장에 신라왕실이 쏟았던 손길이 느껴지는 기록이다. 절영도 목장은 누대로 말 생산기술이 축적되어 있었고, 그것이 후삼국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왕건에게 驄馬를 선물한 甄萱은 사위가 죽고 뭔가 손해를 보았다는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도참이 그에게 절영도의 말이 왕건에게 넘어가면 백제가 망한다고 말까지 하니 말을 돌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19) 『高麗史』 권1, 太祖 9년(926) 夏4월 庚辰, “(생략) 萱聞讖云 絶影名馬至百濟亡 至是悔之使人請還其馬王笑而許之”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도참사상이 유행한 후삼국의 무한경쟁시대 심리를 여기서 볼 수도 있다. 선물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인지甄萱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驄馬가 王建에게 계속 머문다면 못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두려웠을 것이다. 상서로운 말을甄萱이 스스로 王建에게 주었으니 그가 자신의 운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호 李瀾(1681-1763)은甄萱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星湖先生全集』卷7, 海東樂府 絶影馬歌를 보자.

바다 안에 산이 있어 그 이름이 절영이라 / 洋中有山名絶影  
 운무가 자욱하니 용성이 정기를 내렸다네 / 雲霧晦冥龍降精  
 이때는 바야흐로 병록의 운수를 만난 때라 / 是時方值丙鹿運  
 녹도와 적부가 다투어 바쳐졌네 / 錄圖赤符爭來呈  
 견훤 같은 어린애가 군병을 훔쳐 놀았지만 / 甄萱小兒盜弄兵  
 흥망의 형세 판가름 나 하늘 뜻이 분명했네 / 興亡勢判天心明  
 완산의 사신이 준마를 이끌고서 / 完山使者牽駿骨  
 남쪽 목물과 함께 상경에 들어왔네 / 卷與南琛入上京  
 군왕이 몸소 나와 예물을 받았는데 / 君王臨軒受庭實  
 최고의 상서 물품이 참위설과 나란했네 / 上瑞會與讖緯并  
 하늘이 보낸 신물이 백신의 호위를 받고 / 天教神物百神衛  
 창합문 앞에 우뚝 서니 위풍을 자아냈네 / 卓立閭闔雄風生  
 광대한 강토에서 바깥 마구간으로 여겼으니 / 恢恢疆域視外廐  
 말을 우성에 돌려주어도 해로울 것 없었다네 / 屈產未害歸虞城  
 지리산 앞 대방의 북쪽에 / 智異山前帶方北  
 마을에는 아직도 만마의 이름이 전해지네 / 洞府猶傳萬馬名  
 산하가 풍성하다고 해서 어찌 믿을 수 있으랴 / 山河富盛安足恃  
 동물도 또한 인자가 정벌하기를 기다렸네 / 畜物亦待仁人征  
 기세등등 장대하게 구름처럼 모였지만 / 騰驪磊落空雲屯

필경에는 모두 항복의 길을 쫓아갔네 / 畢竟盡逐牽羊行  
 남쪽 백성들이, 말이 오면 백제 망한다는 노래 부르지 마소 / 南岷莫  
 唱馬至濟亡謠  
 백제는 자멸한 것이지 용마 때문 아니라오 / 濟亡自亡不緣龍馬成

甄萱이 소유했던 절영도의 驄馬는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적지 않게 시와 산문에도 등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초에 편찬된 두보의 詩集인 『杜詩諺解』에 편찬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 8세기 당나라 시인 杜甫가 驄馬를 노래한 2개의 시가 있다.<sup>20)</sup> 高都護驄馬行를 먼저 보자.

(高仙芝)안서도호의 푸른 호총마(安西都護胡青驄).  
 이름을 날리고 홀연 장안(長安)으로 왔네 (聲價欻然來向東).  
 전장에서는 당할 자 없었고(此馬臨陣久無敵),  
 주인과 한 마음이 되어 큰 공로를 세웠네(與人一心成大功).  
 공을 이룬 지금 長安에 데려와 쉬게 하려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功成惠養隨所致),  
 발걸음도 가볍게 먼 (타클라마칸)사막 지방에서 온 것이다(飄飄遠自流沙至).  
 그 씩씩한 모습에는 주인의 보살핌을 원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雄姿未受伏櫪恩)  
 그 용맹한 기개는 전장을 달리며 적군을 짓밟겠다고 생각하는 듯하다(猛氣猶思戰場利).  
 발목이 잘록하고 발굽이 높아 쇠를 밟는 듯하니(踠促蹄高如踠鐵),  
 그 다리로 교하의 두꺼운 얼음을 몇 번이나 힘껏 밟아 깨뜨렸는가(交

20) 원명은 『分類杜工部詩諺解』이다. 원나라 때 편찬된 『纂註分類杜詩』를 원본으로 삼아 두보의 시 1,647편 전부와 다른 사람의 시 16편에 주석을 달고 풀이한 책으로, 初刊本과 重刊本이 있다. 초간 『杜詩諺解』는 1443년(세종 25) 4월에 착수, 38년 만인 1481년(성종 12)에 비로소 간행된 한국의 첫 역시집(譯詩集)이다.



河幾蹴層冰裂).

오색 꽃무늬 흩어져 온 몸에 감도니(五花散作雲滿身).

만리를 뛰는 한혈(피땀)마를 이제 보았네(萬里方看汗流血).

장안의 장사들이야 감히 타보기나 하라(長安壯兒不敢騎)

번개보다 더 빠른 걸 세상이 아는데(走過掣電傾城知).

푸른 실로 갈기 만 채 늙고 있으니(靑絲絡頭爲君老)

언제나 서역 큰길을 다시 달릴까!(何由卻出橫門道).

高仙芝는 唐의 玄宗 치세인 開元(713-741) 말에 安西副都護로 임명되었다. 일찍이 당태종은 貞觀(정관. 627-649) 연간에 高昌國을 정복하고, 安西都護府를 交河城(투르판)에 두었다. 당고종 치세인 顯慶(656-660) 연간에는 龜茲를 정복하고, 안서도호부를 이곳으로 옮겼다. 안서도호부는 于闐(호탄)에서 페르시아 동쪽까지 서역 여러 나라를 관할하는 행정 관청이었다.

天寶 8년(749), 서역에서 吐蕃군을 격파하여 안서도호로 진급한 高仙芝가 長安에 개선할 때 驄馬를 타고 왔는데 杜甫가 이를 보고 詩를 지었다. 말은 오색 꽃무늬가 온몸에 흩어져 있으며, 발목이 잘록하고 발굽이 높은 汗血馬였다. 杜甫는 高仙芝장군이 아니라 그가 탄 驄馬에 폭 빠져 있다. 詩는 작자가 長安에서 거주하던 38세 때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驄馬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杜甫의 또 다른 詩 驄馬行에 보다 확실하게 나타난다.

(등공이 말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아는데(鄧公馬癖人共知)

(처음으로 꽃무늬 청백색 말을 얻었으니 大宛國에서 난 품종이네(初得花驄大宛種)

(옛날부터 전해 듣고 한번 보길 원했는데(夙昔傳聞思一見)

(끌고 오니 좌우 사람들 정신이 모두 떨렸네(牽來左右神皆竦)  
 (웅건한 자세와 빼어난 태도가 어찌 이렇게도 높고 험한지(雄姿逸態  
 何嶮峯)  
 그림자 돌아보고 교만하게 울며 스스로 사랑 받음을 자랑한다(顧影  
 驕嘶自矜寵)  
 각진 눈빛 푸르게 빛나 거울을 끼워 매달아 놓은 것 같아(隅目青熒夾  
 鏡懸)  
 근육 같은 말갈기 울퉁불퉁, 얼룩무늬는 동전 움직이는듯하구나(肉  
 駮硯礪連錢動)  
 아침에 화려한 수레 내리는 것 조금 실험해보니(朝來少試華軒下)  
 천금이 비싼 가격임을 깨닫지 못하겠네(未覺千金滿高價)  
 붉은 땀이 백설 같은 털에서 조금 나오는데(赤汗微生白雪毛)  
 은 안장에는 향기 나는 비단 수건이 덮여있도다(銀鞍去覆香羅帕)  
 양경 집안의 오래된 것을 이공이 갖게 되었으니(卿家舊物公能取)  
 이것은 천자 마굿간의 용마와 버금가는 말이로다(天廐眞龍此其亞)  
 낮에는 모름지기 위수와 경수 깊은 물을 뛰어넘고(洗須騰滄渭深)  
 저녁에는 달려 유주와 병주의 밤에 털을 솔질하리라(晝夕趨可刷幽并夜)  
 듣건대, 천리마란 늙어야 이루어진다고 하는데(吾聞良驥老始成)  
 이 말은 몇 년 사이에 사람을 더욱 놀라게 하였다(此馬數年人更驚)  
 어찌 있겠는가, 네 말발굽이 새보다 빠른데도(豈有四蹄疾於鳥)  
 8 준마와 같이 먼저 울며 달려들지 않겠는가(不與八駿俱先鳴)  
 세상에서 갑자기 어찌 생겨날 수 있겠는가(時俗造次那得致)  
 어둑한 구름과 안개에서 이제 막 정기가 내려온다(雲霧晦冥方降精)  
 요즈음 듣건데, 좋은 말 구하는 조서를 내려 도읍이 떠들썩한데(近聞  
 下詔喧都邑)  
 기린마를 그냥 땅에 다니게 내버려두려 하겠는가(肯使麒麟地上行)

위의 시에서 총마의 용모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에 대한 감탄이 보인다. 총마의 웅건한 자세, 사랑받아 교만한 모습, 각진 눈빛, 근육 같은 말

갈기, 붉은 땀, 장안에서 북경부근까지 달리는 천리마의 모습, 새보다 빠른 네 발굽, 말에 대한 당대의 애호 등이 모두 들어있다. 무엇보다 驄馬를 周나라 穆王이 西王母를 만나로 갈 때 탄 전설의 八駿에 비유하기도 한다. 시의 줄친 윗부분에서 두보가 보았던 총마는 중앙아시아 대만의 품종이고, 청백색 꽃무늬를 하고 있다.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막상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는 전설의 말이다.

<그림 1> 大宛國의 위치



절영도의 驄馬가 중앙아시아 大宛 품종(汗血馬 학명 : Parafilaric muitipapilosa)일까. 당시 신라에는 키가 작은 몽고품종의 말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왕실의 말도 그러했을까. 『三國史記』 권39, 雜志8 職官中 內省 조의 다음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白川苜蓿典, 大舍一人, 史一人.

漢祗苜蓿典, 大舍一人, 史一人.

蚊川苜蓿典, 大舍一人, 史一人.  
 本彼苜蓿典, 大舍一人, 史一人.

신라 왕실기관 內省에서는 왕경의 백전·한지·문천·본피 등 4곳에 苜蓿을 재배하는 草地를 두고 있었고, 각각 왕실관리인 大舍 1人, 史 1人이 그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苜蓿이 신라 왕실기관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史記』 卷123, 大宛列傳을 보자.

大宛 사람들은 술을 즐겨 마시고 대완의 馬는 苜蓿을 좋아한다. 漢의 사신이 종자를 취하여 가지고 와서 天子가 처음으로 비옥한 땅에 苜蓿과 蒲陶를 심었다.<sup>21)</sup>

大宛馬가 苜蓿을 즐겨 먹는다고 한다. 漢武帝는 원정대를 그곳에 파견하여 大宛馬를 구한 사실은 너무나 저명하다.<sup>22)</sup> 또한 그 말을 먹이기 위해 목축의 종자를 중국으로 가지고와 재배하게 했다. 신라에 大宛馬와 함께 목축이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신

21) 『史記』 卷123, 大宛列傳, “大宛俗嗜酒 馬嗜苜蓿 漢取其實來 於是天子始種苜蓿 蒲陶肥饒地”

22) 『史記』 卷24, 樂書2, “至今上即位 (생략) 後伐大宛得千里馬 馬名蒲梢 集解應劭曰 大宛舊有天馬種 蹋石汗血 汁從前肩膊出如血 號一日千里 索隱 梢音史交反 又本作騷 亦同音 次作以爲歌 歌詩曰 天馬來兮從西極 經萬里兮歸有德 承靈威兮降外國 涉流沙兮四夷服”

『漢書』 卷6, 武帝紀6 太初2年 秋八月條, “遣貳師將軍李廣利發天下謫民西征大宛”  
 『漢書』 卷61, 張騫·李廣利傳, “漢使往既多 其少從率進孰於天子 言大宛有善馬在 貳師城 匿不肯示漢使 天子既好宛馬 聞之甘心 使壯士車令等持千金及金馬以請宛王 貳師城善馬 宛國饒漢物 相與謀曰 漢去我遠 而鹽水中數有敗 出其北有胡寇 出其南 乏水草 又且往往而絕邑 乏食者多 漢使數百人爲輩來 常乏食 死者過半 是安能致大 軍乎 且貳師馬 宛寶馬也 遂不肯予漢使 漢使怒 妄言 椎金馬而去 宛中貴人怒 漢使至 輕我 遣漢使去 令其東邊郁成王遮攻 殺漢使 取其財物 天子大怒 諸嘗使宛姚定漢等 言 宛兵弱 誠以漢兵不過三千人 強弩射之 卽破宛矣 天子以嘗使浞野侯攻樓蘭 以七 百騎先至 虜其王 以定漢等言爲然 而欲侯寵姬李氏 乃以李廣利爲將軍 伐宛”

라 성덕왕 동시기의 일본기록이 주목된다.

“(716年 6月)正7位上 馬史伊麻呂 등이 新羅國紫驃馬 2疋을 바쳤  
다. 그 키가 五尺五寸이다.”<sup>23)</sup>

716년 6월 말을 다루는 일본의 관리 馬史伊麻呂 등이 新羅國紫驃馬 2마리를 천황에게 헌상했는데 키가(어깨 높이) 5척 5촌(165cm)에 이른다고 한다. 이 기록이 남은 것은 당시 일본에서 이토록 큰 말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新羅國紫驃馬는 현재 경주마 보다 크거나 비슷하며, 제주 조랑말 보다 25cm 가량 크다. 중앙아시아산 말이 아니면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성덕왕 당시 일본의 사이가 좋았고,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절 교환이 있었다. 성덕왕 당시 일본 지방관의 요청으로 신라가 紫驃馬를 증여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sup>24)</sup>

무엇보다 對馬島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대마도는 신라사신이 꼭 거쳐야 하는 기착지이며, 그들의 도움 없이 대마도 기착은 물론이고 일본 본섬으로 향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sup>25)</sup>

조선시대에도 對馬島主가 말을 요구하자 이를 들어준 기록이 보인다. 당시에도 일본은 체구가 큰 말을 요구했다. 『承政院日記』 권14(탈초본

23) 『續日本紀』 권7, 靈龜 2년(716) 6월 辛亥, “正七位上馬史伊麻呂等獻新羅國紫驃馬 二疋高五尺五寸”

24) 후대의 자료이지만 『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1, 享保7, 壬寅 7月19日之日付(1722년 07월19일) 조를 보면 東來府 絶影島の 馬牧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마도 사람들이 절영도에 말이 산출된다는 사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5) 목장에서 훈련 중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말들은 도태의 대상이 된다. 키 큰 중앙아시아산 말이라고 해서 모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훈련을 시킬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도 없다. 일본에 들어간 紫驃馬는 왕실목장에서 신라 민간에 처분한 말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삼국사기』 온달전을 보면 고구려에서 戰馬로 훈련된 國馬가 市長에서 판매되고 있다. 서영교, 『高句麗 國馬』 『軍史』 61, 국방군사연구소, 2006, 61 ~ 90쪽.

266책), 숙종 4년(1678년) 9월 5일 계묘 조를 보면 對馬島主가 원하는 큰 체구의 준마(體大駿馬)를 該司로 하여금 求得하되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豫差馬도 下送시키고 養馬 1명을 別定하도록 分付하기를 청하는 禮曹의 계가 있다.<sup>26)</sup> 물론 그 말의 출처는 절영도 목장을 관할하고 있던 東萊府였다.<sup>27)</sup>

新羅國紫驃馬가 일본으로 건너간 시기(716년)는 성덕왕이 김유신의 손자 允中에게 絶影山馬 1필을 선물했던 동시기이며, 윤중이 받은 절영마는 장신의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李令翊(1740~?)은 그의 『信齋集』 冊1, 東國樂府에 실려 있는 絶影馬 詩에서 “西土賊馬로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그는 절영도 驄馬를 서역마로 보았다.<sup>28)</sup> 왕실목장인 절영도 목장에서 大宛 품종의 말이 사육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목속 재배 초지도 존재했을 것이다.

#### IV. 신라의 다도해 섬 목장

中代末의 사실을 전하는 『신당서』 권220, 신라전에 宰相家の 島嶼 목

26) 『承政院日記』 권14(탈초본 266책), 숙종 4년(1678년) 9월 5일 계묘조, “南天澤以禮曹言啓曰 對馬島主所求體大駿馬未割鼻二匹 令該司求得 而彼或有執頗之弊 則不可無豫差之馬 豫差馬二匹 依前例亦爲下送 以爲拒執之意 而令該司別定養馬一人 給馬領去之意 分付何如 傳曰 允”

27) 對馬島主가 말 2필을 청했는데 어떤 말을 구하는지 상세하지 않으므로 다시 東萊府에서 啓聞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계가 있다. 『承政院日記』 권14(탈초본 266책), 숙종 4년(1678년) 11월 19일 병진조, “申厚載以禮曹言啓曰 前因東萊府使李馥狀啓 對馬島主 求請馬二匹 及豫差馬一匹 理馬仇以傑 養馬朴沔鶴處 逢授下送矣 卽接東萊府使所報(생략)”

28) 『信齋集』 책1, 東國樂府 絶影馬, “甄萱獻絶影島馬於麗祖 後聞讖云絶影名馬至百濟亡 乃悔之 使人請還馬 王笑而許之 西土賊鷄也 不可以司夕 西土賊車輿也 不可以乘澤 西土賊馬也 不可以守國”

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sup>29)</sup>

(신라의) 宰相家は 祿이 끊이지 않고 奴僮이 3천 명이며 甲兵, 소, 말, 돼지의 숫자도 이에 맞먹는다. 바다 가운데 있는 산에서 목축하고 (畜牧海中山) 필요할 때 활을 쏘아 잡아먹는다.<sup>30)</sup>

畜牧海中山이 신라의 일반적인 목축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초원에서 목축하는 것을 보아왔던 당나라 사절들에게 多島海 지방의 목축이 특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중국에 비해 땅이 좁은 신라였다. 농지와 목장이 인접해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가축들이 농경지를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농경과 목축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우며, 농경지대와 공간이 분리된 섬에서 목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宰相家は 이기백의 지적대로 진골 이상 중앙의 大貴族이다.<sup>31)</sup> 3천의 奴僮은 진골귀족 家庭에 예속되어 조직화된 인력이며, 진골귀족의 가산 경제를 운영하는 손발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수한 소 말 돼지 등은 그들에 의해 관리되었을 것이다. 특히 말이란 그것을 사육·생산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戰馬로 훈련시키는데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sup>32)</sup>

언급한 바와 같이 羅濟를 멸망시킨 후 신라 문무왕은 669년에 목장을

29) 今西龍, 『新羅骨品考』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198쪽. 李基東, 『新羅 金入宅考』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한국연구원, 1980, 203쪽.

30) 『新唐書』 권220, 신라전, “宰相家不絶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 畜牧海中山 須食乃射”

31) 李基白, 『新羅私兵考』 『歷史學報』 9, 역사학회, 1957; 앞의 책, 1974. 256쪽.

32) IV장에서 이상의 글은 필자의 다음 두 글을 참고했다. 서영교, 앞의 논문, 2002a, 147~149쪽. 張保臯는 섬 목장의 牧童 출신이며, 휘하 기병들도 그러했다. 839년 장보고가 騎兵 3,000으로 대구에서 민애왕 군대를 물리치고 신무왕을 옹립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영교, 앞의 논문, 2002b, 58~68쪽. 고정석, 앞의 논문, 2005, 232쪽.

재분배했다. 【669년 목장 재분배기록: 『삼국사기』 권6, 문무왕 9년 조】을 보면 왕실(所內)에 22개소, 관(官)에 10개소, 김유신에게 6개소 김인문에게 5개소 이찬 5명에게 각각 2개소, 소판 4인에게 각각 2개소 파진찬 6인과 대아찬 12인에게 각각 1개소, 대아찬 이하의 나머지 74개소는 적당히 분배되었다고 한다.

74개소를 받는 자들은 가정인력조직을 가진 대아찬 이하의 진골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삼국사기』 권33, 잡지2 屋舍에 마구간의 크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육두품은 마 5마리, 오두품은 마 3마리, 사두품에서 백성까지는 마 2마리 이상을 넣을 수 있는 마구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골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sup>33)</sup> 진골귀족의 목장경영과 말 생산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sup>34)</sup>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수의 목장 분포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증보문헌비고』에도 총 171곳이 보인다. 이는 신라의 목장과 그 수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sup>35)</sup> 174개의 목장은 조선시대와 같이 거의 대부분 섬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며, 남한 지역의 도서지방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33) 『三國史記』 권33, 잡지2 옥사조, “眞骨 室長廣 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不雕懸魚 不飾以金 銀 鑰石 五彩 不磨階石 不置三重階 垣牆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錦 闕 繡 野草羅 屏風禁繡 床不飾玳瑁 沈香 六頭品 室長廣 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重枕 栱牙 懸魚 不飾以金 銀 鑰石 白鐵 五彩 不置巾階及二重階 階石 不磨 垣牆不過八尺 又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緣禁闕 繡綾 屏風禁繡 床不得飾玳瑁 紫檀沈香黃楊 又禁錦鷹 不置重門及四方門 廐容五馬 五頭品 室長廣 不過十八尺 不用山榆木 不覆唐瓦 不置獸頭 不施飛簷重枕花斗牙懸魚 不以金銀鑰石銅鐵五彩爲飾 不磨階石 垣牆不過七尺, 不架以梁 不塗石灰 簾緣禁錦綉綾絹 不作大門四方門 廐容三馬 四頭品至百姓 室長廣 不過十五尺 不用山榆木 不施藻井 不覆唐瓦 不置獸頭飛簷栱牙懸魚 不以金銀鑰石銅鐵爲飾 階砌不用山石 垣牆不過六尺 又不架梁 不塗石灰 不作大門 四方門 廐容二馬”

동시에 이러한禁畵은 당시 신라에서 백성도 2마리 이상의 말을 소유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말의 생산과 유통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서영교, 앞의 논문, 2002a, 149~153쪽.

35) 南都永,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1996, 229쪽 〈표 4〉 참조.



목장 재분배는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던 백제지역의 접령이 가져다 준 결실이었다.<sup>36)</sup> 신라의 섬 목장은 일본의 승려 圓仁의 日記에도 나온다. 846년 9월 圓仁은 무주(전남) 도서지역에서 신라 제3宰相과 內家(왕실)의 목장을 목격한 바 있다.

오전 6시 경에 무주 남쪽 황모도 개펄에 배를 대었는데, 이곳은 丘草島라고도 부른다……. 이곳은 신라의 제 3 宰相이 말을 키우던 곳이다(『입당구법순례행기』 847년 9월 6일).

오전 6시 경에 (여수) 雁島에 머물러 잠시 쉬었다. 이곳은 신라의 남쪽지방으로서 內家(왕실)의 말을 기르는 산이다(『입당구법순례기』 847년 9월 8일).

9년간 당에서 체류한 圓仁은 재당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 日本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圓仁 일행의 출발지는 산동반도의 적산포였고, 초겨울에 불어오는 북서풍을 타고 신라의 서남해안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圓仁은 서해안 목포 부근에서 신라 3재상의 목장을 목격했고, 거기서 동쪽으로 꺾어 남해안으로 들어가 여수해안 부근에서 신라 왕실목장을 목격했다.

절영도는 조선시대에도 목장으로 사용되었다.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1497년) 7월 18일 정사 1번째 기사를 보자.

領事 한치형(韓致亨)이 아뢰기를, “각 목장(牧場)이 거의 다 농경지로 개간되어 말 먹이기에 방해되오니, 밭을 측량해서 더 경작한 곳

36) 서영교, 앞의 논문, 2002b, 65쪽

서영교, 앞의 논문, 2002a, 149쪽. 고정석, 앞의 논문, 2005, 216쪽. 고정석은 조선 시대 172개 목장 가운데 59개가 전라도에 위치해 있고 그 가운데 52개가 섬이었다고 했다.

을 일제히 금하소서.” 라고 하고, 특진관 이극균(李克均)은 아뢰기를, “마정(馬政)은 매우 중대합니다. 지금 구천 목장(九千牧場)은 수목이 울창하고 인민이 희소하여 말이 잘 번식되지 않으니, 신의 생각으로 절영도(絶影島)가 말 먹일만한 곳입니다. 청컨대 방목하는 소를 치우고 구천 목장의 말을 이 섬으로 옮겨서 먹였으면 합니다.”하였다.<sup>37)</sup>

絶影島는 당시 소를 방목하고 있었다. 소를 치우고 구천 목장의 말을 절영도에 옮기려고 했다. 절영도가 말을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47책) 인조 13년(1635) 3월 24일 조의 일부를 보자.

李曙가 이르기를 목장의 감목관(監牧官)은 대부분 적임자가 아니며, 목인(牧人) 또한 숫자가 매우 적으니 너무도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제주(濟州)에 있는 말의 숫자는 매우 불어나 계유년에 8,000필에 이르렀고, 전년에 번식한 것도 더욱 늘었으니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거의 1,000필은 될 것입니다. 금년이 지난다면 거의 1만 필이 될 것입니다. 대저 말은 많은데 목자(牧子)가 적기 때문에 섬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반드시 목자의 숫자가 많아진 뒤라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38)</sup>

李曙가 조선 인조에게 보고했다. 제주도에 말이 불어났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목인이 모자라,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목자

37) 『燕山君日記』 25권, 연산 3년(1497년) 7월 18일조, “領事韓致亨曰 各牧場耕墾殆盡 有妨牧馬 量田後加耕處一禁 特進官李克均曰 馬政甚大 今九千場則樹木茂密 人民鮮少 馬不蕃息 臣意 絶影島可牧馬處也 請去所放之牛 九千場馬移牧此島”

38) 『承政院日記』 3책, (탈초본 47책) 인조 13년(1635) 3월 24일조, “李曙啓曰 牧場監牧官 多不得人 牧人亦甚數少 極可悶也 但濟州馬數頗數 癸酉年至八千疋 前年孳息者益蕃 未及來到 而必幾至千匹 如過今年 則幾滿萬匹矣 大抵馬則多 而牧子少 故島民不得支堪 牧子必數多然後 可得支持矣

의 수가 많아야 목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불어난 제주도의 말이 다른 섬으로 분산 배치되는 대안 등이 제시 되고 있다. 절영도에도 50필의 제주 말을 옮기자고 했다.<sup>39)</sup>

위의 기록은 서남해안 도서지역에 산재한 신라 왕실 목장들 사이에 인력과 말의 상호 교환이 있었던 것을 상징케 한다. 669년 문무왕이 자신에게 양도한 왕실 목장 22곳과 그 이전에 조성된 목장 대부분은 경남 해안도서 지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sup>40)</sup> 어떠한 왕조이더라도 지방의 반란을 염두에 두고 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sup>41)</sup>

799년 신라 昭聖王은 巨濟郡 居老縣을 학생녹읍으로 삼게 한 바 있다.<sup>42)</sup> 이는 거제도의 일부가 왕실의 소유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다. 『삼국사기』 권34, 지리1을 보자.

거제군은 문무왕이 처음으로 설치한 상군을 설치했던 곳으로써 바다에 있는 섬이었는데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이 군에 속한 현은 셋이다. 아주현은 원래 거로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명진현은 원래 매진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남수

39) 『承政院日記』 3책, (탈초본 47책) 인조 13년(1635) 3월 24일조, “曙日 絶影島 抄送濟州雌馬五十疋而放之六字缺八十疋矣”

40) 『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1, 享保7(1722년), 壬寅, 7月 19日之日付, “慶尙道牧場 蔚山郡(울산) 魴魚津 東萊縣(부산동래) 吾海也項 絶影島 石浦 長鬐縣(영일) 冬乙背申 晋州(진주) 興善島 南海縣(남해) 錦山 凍川申 金海府(김해) 金丹申 巨濟縣(거제도) 加羅山 九川島 山達島 漆川島 塔浦 固城縣(고성) 未乙上申 海平申 漆原縣(함안 칠원면) 汝火申 熊川縣(진해) 加德島”

41) 신라 近畿지역인 良州에 왕실의 영지가 집중된 현상이 보인다. 양주 소속의 절화군, 퇴화군, 추화군은 수취를 위한 令縣을 각각 5-6개를 가지고 있어, 왕경을 둘러싼 3郡이 왕실 소유의 영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尹善泰,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136~137쪽.

42) 『三國史記』 권10, 소성왕 원년(799) 3월조, “元年 春三月 以靑州居老縣爲學生祿邑”

현은 원래 송변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은 다시 옛 이름으로 회복되었다.<sup>43)</sup>

669년 목장을 재분배한 문무왕이 거제도에 상군을 설치하였다. 거로 현은 이 섬에 속한 3개 현 가운데 하나이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對馬島宗家文書資料集』 1, 享保7(1722년) 壬寅 7月19日之日付 慶尙道牧場 조에 “巨濟縣에 加羅山, 九川島, 山達島, 漆川島, 塔浦.”라고 하여 거제도에 5개의 목장을 열거하고 있다. 거제도에도 왕실목장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그림 2> 현재의 영도



그렇다면 영도에 언제부터 목장이 존재했을까. 지리적으로 볼 때 절 영도는 신라가 팽창하면서 최초로 차지한 목축이 가능한 규모의 섬이

43) 『三國史記』 권34, 지리1, “巨濟郡 文武王初置裳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三 鵝洲縣 本巨老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溟珍縣 本買珍伊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南垂縣 本松邊縣 景德王改名 今復故”

었다. 절영도가 신라에서 가장 먼저 섬 목장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왕실이 지리상 신라왕경과 가장 가까운 절영도를 목장으로 이용한 경험은 통일기 174개의 섬 목장 조성에는 물론이고 이보다 앞서 三國時代末의 그것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말을 훈련시키는 牧者조직이나 그들이 가진 수의학 기술 등이 영도왕실목장으로부터 확산되었을 것이다.

‘絶影’의 사전적 의미는 그림자마저 없어진다는 뜻으로, 발길을 끊는 것을 이른다. 그렇지만 중국고전을 보면 ‘絶影’은 그림자도 떼어 놓고 달릴 수 있을 만큼 빠른 名馬 이름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裴松之(372년~451년)의 『三國志』 주석(王沈 『魏書』: 260년 경 찬술)에 의하면 絶影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뺨·다리·팔에 부상을 입고 탈출한 曹操의 목숨을 구한 名馬라고 한다. 後漢末 197년 조조가 張繡으로부터 夜襲을 받아 宛城에서 도망칠 때 이 絶影이란 이름을 가진 馬를 탔던 것이다.<sup>44)</sup>

언급한 『삼국사기』 김유신전을 보면 절영이란 이름이 통일기 초기인 성덕왕대 최초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 이름이 붙여질 때는 영도에 목장이 설치되고 시간이 지나 명마가 생산지로 거듭난 이후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통일 이전, 적어도 7세기 초중반 이전의 멀지 않은 어느 시기에 절영도에 목장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4) 『三國志』 卷1, 魏書1 武帝紀1 建安2年(197) 春正月條, “公到宛 張繡降 旣而悔之 復反 公與戰 軍敗 爲流矢所中 長子昂弟子安民遇害 裴松之註 魏書曰 公所乘馬名絶影 爲流矢所中 傷頰及足 并中公右臂 世語曰 昂不能騎 進馬於公 公故免 而昂遇害” 한편 매송지의 주석(世語曰)에 의하면 조조의 아들 昂이 자신의 말을 아버지에게 주어 탈출시키고 자신은 그곳에서 죽었다고 한다. 429년 裴松之는 劉宋 文帝의 명을 받고 『三國志』에 주석을 달았다. 그는 여러 기록을 수집하고 많은 異說을 모아 완성하여 이를 헌상하였다. 주석은 『三國志』의 저자 陳壽의 문장에 비하여 읽기가 수월하고 재미있다.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三國志演義』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 V. 맺음말

김유신의 적손자 允中이 성덕왕에게 絶影山馬 1필을 하사받았다. 이는 다음의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성덕왕대에 절영도에 목장이 있었고, 그것은 왕실의 소유였다.

통일 후 신라와 일본의 교류는 어느 시대보다 활발하였다. 신문왕에서 성덕왕대까지 신라가 일본에 증여한 물품 가운데 말과 노새 등이 간간히 보이고 있다. 왕실목장이 왜국으로 가는 항구 부산에 위치해 있고, 신라의 遣倭使들이 그곳에 들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절영도 왕실 목장에서 그들은 말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 왕경 경주에서부터 동물들을 끌고 오는 것보다 출국창구에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편리하다.

언급한 『三國史記』 김유신전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근친왕족들의 서운함은 성덕왕의 절영산마 하사에서 절정을 찍는다. 그 말은 어떠한 존재인가.

【669년 목장 재분배기록】을 보면 174개의 목장이 분배되었다. 왕실(所內)에 22개소, 관(官)에 10개소, 김유신에게 6개소, 김인문에게 5개소, 이찬 5명에게 각각 2개소, 소판 4인에게 각각 2개소 파진찬 6인과 대아찬 12인에게 각각 1개소, 대아찬 이하의 나머지 74개소는 적당히 분배되었다고 한다. 관등이 복장분배의 기준이었다.

655년 기록을 보면 성덕왕의 종조부 6형제들이 角干·伊滄·波珍滄의 관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14년 후인 669년에 가서 그들은 모두 迺滄 이상의 관등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태종무열왕의 장남 문무왕은 22개 차남인 김인문은 5개의 목장을 사여 받았고, 그 아래 동생들 文王, 老且, 仁泰, 智鏡, 愷元 등은 각각 2개 이상의 목장을 하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710년 당시 성덕왕 근친들(聖德王之親屬)은 문무왕 7형제의 후손이며, 그들은 대부분 목장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말을 소유

하고 있었을 것이다. 5개 이상의 목장을 분배받은 김유신 가문을 상속 받은 종손 윤중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함에도 절영산의 말 한 마리 때문에 근친왕족들이 시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덕왕이 하사한 절영산 말은 최고위 귀족들이 소유한 말과 뭔가 다른 특별한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에 키 큰 말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續日本記』 716년 6월조를 보면 말을 키우던 일본의 관리 馬史伊麻呂 등이 신라 紫驃馬 2마리를 천황에게 헌상했는데 어깨 높이가 5척 5촌(165cm)에 이른다고 한다. 중앙아시아산 말이 아니면 그 정도의 크기가 되기 어렵다. 성덕왕 당시 일본과의 사이가 좋았고,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절 교환이 있었다. 對馬島의 요청으로 신라가 紫驃馬를 증여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924년 후백제 甄萱이 고려 태조 王建에게 절영도의 驄馬 1필을 선물했다. 절영도 驄馬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8세기 당나라 시인 杜甫의 驄馬行는 참고가 된다. 총마는 중앙아시아 大宛의 품종이고, 청백색 꽃무늬를 하고 있다.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막상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고 말아버리는 전설의 말이었다.

『삼국사기』 직관지 丙省(왕실) 기관들 가운데 苜蓿 재배 목장이 4개 보인다. 『史記』 大宛列傳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大宛의 馬는 苜蓿을 좋아하며, 漢武帝도 그 말을 먹이기 위 목축의 종자를 수입하여 재배했다고 한다. 신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절영도 驄馬는 중앙아시아 大宛 품종의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왕들은 진골귀족들의 말보다 훨씬 키 크고 다리가 긴 절영도의 驄馬를 탔던 것으로 보인다. 성덕왕이 윤중에게 말을 하사하자 근친왕족들이 질투했던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

신라 목장들은 대부분 섬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당서』 권 220, 신라전에 신라 재상가들의 도서지방 섬 목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신라의 일반 현상에 대한 기록이었다. 귀국길에 신라의 도서해안을 지나가던 중국 사신들에게 신라의 섬 목장들이 특이하게 보였고 그것을 기록에 남겼던 것이다.

신라왕실이 지리상 신라왕경과 가장 가까운 절영도를 목장으로 이용한 경험은 통일이후 신라의 섬 목장 구성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신라를 거쳐 일본으로 귀국하던 승려 圓仁의 일기에 신라 섬 목장이 나온다. 846년 9월 그는 서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신라 제3 재상과 왕실 목장을 목격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수의 목장 분포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증보문헌비고』에도 총 171곳이 보인다. 이것도 서남해안 거의 모든 도서를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669년에 재분배된 신라의 목장의 수 174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절영도 목장에 대한 기록은 성덕왕대(702~737)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 절영도는 신라가 팽창하면서 가장 먼저 소유한 규모 있는 섬이었고, 가장 먼저 목장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왕실이 지리상 신라왕경과 가장 가까운 절영도를 목장으로 이용한 경험이 통일이후 신라의 섬 목장 구성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曹魏 조정에서 司馬氏가 실권을 가진 시기(曹髦 재위 254-260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王沈의 『魏書』에 의하면 ‘絶影’은 아주 빠른 馬의 이름이다. 절영산이란 이름이 지어질 때는 영도에 목장이 설치되고 시간이 지나 명마가 생산지로 거듭난 이후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통일 이전, 적어도 7세기 초중반 이전의 어느 시기에는 절영도에 목장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천마총의 천마도는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1973년에 발굴되어 최근 복원된 천마도는 ‘투조금동판식 죽제장니(透彫金銅板飾竹製障泥)’였다. 대나무 살을 엮어 안감을 만든 뒤 그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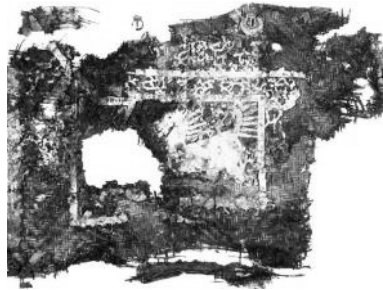


‘금동 판의 일부를 도려내어 무늬를 드러낸 금동판을 놓은 말다래이다.45) 금동 천마 그림에 大宛馬의 특징이 나타난다. 천마총 축조시대에도 신라에서 대완마를 사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3> 大宛의 馬



<그림 4> 최신 복원 천마도 2점의 하나 大宛馬의 특징이 보인다.



## | 참고문헌 |

###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燕山君日記』 『承政院日記』 『星湖先生全集』  
『信齋集』 『杜詩諺解』  
『史記』 『三國志』 『新唐書』 『古文眞寶』 『日本書紀』 『續日本紀』 『對馬島宗家文書  
資料集』

### 2. 저서

南都永,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1996.  
李基東, 『新羅骨制品制社會와 花郎徒』, 한국연구원, 1980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74,

45) 『시사IN』 2016. 11. 3. 제476호, ‘나와서는 안 될 유물 천마도가 나왔다(김태식)’

스가노노마미치外著, 이근우 譯註, 『속일본기』 1,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 3. 논문

고경석, 「장보고 세력의 경제적 기반과 신라 서남해 지역」 『韓國古代史研究』 39, 한국고대사학회 2005.

서영교, 「신라 통일기 기병증설의 기반」 『역사와 현실』 45, 한국역사연구회, 2002.

\_\_\_\_\_, 「張保阜의 騎兵과 西南海岸 牧場」 『震檀學報』 94, 진단학회, 2002.

\_\_\_\_\_, 「高句麗 國馬」 『軍史』 61, 국방군사연구소, 2006.

尹善泰, 「新羅 統一期 王室의 村落支配」,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李基白, 「新羅私兵考」 『歷史學報』 9, 역사학회, 1957.

今西龍, 「新羅骨品考」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朱甫噉, 「新羅骨品社會とその變化」 『朝鮮學報』 198, 千里大學校 朝鮮學會, 2005.

<b>투고일:</b> 2016.09.28. <b>심사완료일:</b> 2016.11.21. <b>게재확정일:</b> 2016.12.07.
---

| Abstract |

Young-do Island where the Silla Royal Family Ranch

Seo, Young-kyo

The Han Chinese were also strongly attracted by the tall and powerful horses ("heavenly horses") in the possession of the Dayuan(大宛) According to the Shiji(『史記』), grapes and alfalfa(苜蓿) were introduced to China from Dayuan following Zhang Qian's embassy: "The Dayuan people love their wine and the horses love their alfalfa. The Han envoys brought back grape and alfalfa seeds to China and the emperor for the first time tried growing these plants in areas of rich soil. Later, when the Han acquired large numbers of the "heavenly horses" and the envoys from foreign states began to arrive with their retinues, the lands on all sides of the emperor's summer palaces and pleasure towers were planted with grapes and alfalfa for as far as the eye could see."

Even in the Tang era "heavenly horses" is popular in China. Poets are constantly praised "heavenly horses" at the end. The horse was introduced into Silla, and alfalfa seeds to here. Alfalfa was grown from four ranches in the Silla capital.

Pusan Young-do Island where the Silla Royal Family Ranch feed heavenly horses. The horses are carried on the capital. The King Seongdeok gift the horses to the Grand son of Kim Yu-shin. A lot of jealousy over the Case of the royal family who had a many pony horse. The horse was tall horse that they are not owned.

The Silla Royal Family ranch is in the 10th century maintains a reputation. The Second Beakje King Jin-won gift the heavenly horses that

produced there to Korea King Wang-keon. The king Jin-won has had a change mind it back. About here is constantly by songs in future generations.

**Keyword:** Silla King Sungdok, Kim Eue-shin III, Young-do Island Pusan, Silla Tall horse, The horse blood sweat, Alfalfa, The Second Beakje King Jin-won, Korea King Wang-keon